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40) (7/22/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22 장 인간의 비참한 상태, 6-7 절

창 6:5 -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히 5:12 -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갈 5:16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 3:15-16 -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6.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늘 악에 이끌립니다(창 6:5). 오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내일이 되면, 자기가 어제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그 죄를 또다시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서 행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서도, 한 시간만 지나면, 마치 자기가 언제 그런 결심을 하였느냐는 듯이 거침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낮아져 겸손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된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것을 한순간의 방심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7.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행실 속에서 아직 참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마치 이제는 다 되었다는 듯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낸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을 초신자로 여기고서, 지극히 선한 삶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히 5:12), 자신이 장래에 삶과 행실을 고쳐서 영적으로 더 진보할 소망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는 것이 지혜롭고 선한 일입니다.

말씀과 해설: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은 늘 죄의 유혹을 당하며 흔들린다. 우리의 믿음이 식고 영적으로 각성해 있지 못하며 영적인 내공이 약해져 있을 경우에 우리의 영혼이 욕심과 정욕에 취약한 육신의 힘에 밀리고 패함을 경험하게 된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한다. 엡 2:3 -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예수님을 믿고 영성의 삶을 시작한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늘 최악된 육체와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갈 5:17 -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께 이끌리며 성령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갈 5:16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친다. 갈 5:19-21 -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갈 5:22-23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육의 투쟁을 경험하는 성도는 영적인 결심과 결단이 육체의 욕망에 덮이고 사그라드는 것을 자주 체험할 것이다. 연약한 우리는 매우 자주 ‘영적 작심삼일’을 경험하지 않은가? 신앙적 열심이 생겼다가도 소멸되는 듯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루고 살리라 다짐했지만, 어느새 주의 일 보다는 나의 일,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며 영적인 삶에서는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결코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 놓고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한다.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결단한 것이 있는가?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에 열심을 내고 집중하리라 다짐하였는가? 그렇다면 그 다짐이 흐려지고 무너져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주님은 육체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이기는 성도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신다.

영적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 중의 또 한 가지는 미지근한 신앙이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꾸지람하셨다. 계 3:15-16 -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확실한 믿음, 참된 순종, 순전한 헌신을 바라신다. 주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마 6:24). 성도는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신앙을 가지면 안된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니다. 참된 신앙이란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며 주님만을 유일한 구원자요 소망임을 알고 고백하며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2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 10:29-30)고 하셨다.

죄악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흔들고, 결심이 무너지게 하고, 열정과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한다. 미지근한 신앙은 각성을 잃어버린 신앙으로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기 쉬우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 그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은 뜨거워야 한다는 말씀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뜨거운 신앙, 깨어있는 신앙, 예민성을 유지하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분명한 믿음, 깨어 있는 영성, 오직 주님의 신앙을 고백하며 실천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나를 영적으로 흐려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발견하여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 땅에서만 헤메이는 신앙이 아니라 위로 주님께로 상승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3. 세상 곳곳의 환난, 질병, 전쟁, 자연재해로 큰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